用事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재검토

具本衒(인하대)

1. 서론
2. 出典과 관련된 문제
3. '事'의 의미와 범주
4. '假用', '借用', '反用'의 의미
5. 결론

1. 서론

한문학 비평용어 가운데 用事만큼이나 논란의 대상이 된 용어도 없는 것 같다. 用事와 新意를 대립적인 개념으로 파악한 견해[1]가 제기된 후, 이를 반박하는 주장들[2]이 잇따르면서 용사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대폭 확대되었다. 사실 신의는 한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갈래의 문학, 나아가 모든 예술이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창작 방법의 하나를 가리키는 용사를 신의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3]

한편, 용사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서구문학의 수사법인 패러디와 비교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4] 이에 따르면 용사와 패러

1) 趙鍾業, 「高麗詩論硏究」, 『語文硏究』 제1집, 忠南大語文硏究會, 1963, 5~63면.
2) 이른 시기의 대표적인 연구로 閔丙秀의 「古典詩論의 韓國的 展開에 대하여」(『眞檀學報』 48, 震檀學會, 1979, 149~172면)가 있다.
3) 정요일은 용사를 作法類 용어로, 신의를 評語類 용어로 구분하여 두 용어의 범주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鄭堯一, 「漢詩批評 用語의 分類」, 『雨田 辛鎬烈 先生 古稀記念論叢』, 創作과批評社, 1983.
4) 고현철, 「用事詩學과 패러디 시학의 비교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12, 현대문학이론학회, 1999, 203~226면; 박수밀, 「用事와 패러디의 상관관계 고찰」, 『溫知論叢』 제16집, 溫知學會,

www.kci.go.kr

디는 原典을 이용하는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용사는 원전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수용하거나 변용하는 방법에 해당하고 패러디는 원전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희화화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이처럼 용사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사의 활용 방식과 효과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는 사실상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5] 상황이 이렇게 된 까닭은 용사와 관련된 자료가 너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일일이 용사의 원전을 찾아내어 그 활용방식을 분석하는 작업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용사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用事와 點化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그러하다. 점화를 용사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작법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점화를 용사의 하위범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용사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본고는 용사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기존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재검토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연구의 방법과 논의의 순서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용사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하자.

① 用事란 말할 것도 없이 經書나 史書 또는 諸家의 詩文이 가지는 特徵的인 觀念이나 事迹을 二·三의 語彙에 集約시켜 元觀念을 補助하는 觀念蘇生이나 觀念倍化에 援用하는 修辭法이다[6]

② '用事'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일을 쓴다", 그리고 다시 알기 쉬운 말

2007, 153~178면.

5) 이와 관련하여, 용사의 방식을 유형별로 정리한 김성룡의 「典範 학습과 중세의 문학교육」(『문학교육학』 1, 한국문학교육학회, 1997, 255~292면)과 한시와 고전시가의 용사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李鍾默의 「李仁老의 漢詩作法과 詩世界」(『韓國漢詩作家硏究』 1, 韓國漢詩學會, 1995, 109~131면), 「고전시가에서 用事와 點化의 미적 특질」(『韓國詩歌硏究』 제3집, 韓國詩歌學會, 1998, 323~345면) 등이 참조가 된다.

6) 崔信浩, 「初期詩話에 나타난 用事理論의 樣相」, 『古典文學硏究』 제1집, 韓國古典文學硏究會, 1971, 117면.

www.kci.go.kr

로 풀이하자면 “故事를 引用한다”는 뜻을 지닌 말이며, 詩文에 관한 ‘作法類 用語’에 해당되는 말로서, 詩文을 지을 때 역사적인 사실과 같은 前代에 있었던 일이나 前人의 말 또는 글을 이끌어다 씀으로써 자신의 논리를 보완하는 작법이다.[7]

일반적으로 定義는 “A는 B라는 특징을 지니는 C이다”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정의항인 A는 種槪念에 해당하며 C는 A를 포함하는 類槪念이어야 한다. ①과 ②에 따르면 용사라는 종개념은 ‘수사법(또는 작법)’이라는 유개념의 하위범주가 된다.[8]

문제는 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B’, 즉 種差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이다. ①에 보이는 “經書나 史書 또는 諸家의 詩文”은 ‘出典’을 가리킨다. ①에 보이는 “特徵的인 觀念이나 事迹”과 ②에 보이는 “역사적인 사실”, “前人의 말과 글”은 ‘事’의 성격을 규정한 것이며, ①에 보이는 “二·三의 語彙에 集約시켜”는 ‘用’의 의미를 규정한 것이다. ①에 보이는 “觀念蘇生이나 觀念倍化”와 ②에 보이는 ‘논리의 보완’은 용사의 효과와 목적을 규정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용사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出典, ‘事’와 ‘用’의 의미, 용사의 목적과 효과 등을 두루 검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고 역시 이러한 순서에 따라 용사의 種差 규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2. 出典과 관련된 문제

최신호는 용사의 출전이 “經書나 史書 또는 諸家의 詩文”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儒家에서 규정한 ‘經史子集’이라는 전통적인 문헌 분류를 수용한

7) 정요일, 『고전비평 용어 연구』, 태학사, 1998, 175면.

8) 용사를 수사법의 하나로 보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예컨대 창작을 위한 문학수업의 과정에서 諸家의 영향을 받는 현상 전체를 용사의 의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 텍스트에 대한 학습, 수용, 비판은 창작 방법과 상관없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를 특별히 용사에만 적용할 수는 없다. 이화형, 「용사(用事)의 개념 정립을 위한 제언: 고려조 시화(詩話)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21집, 국제어문학회, 2000, 3~24면 참조.

www.kci.go.kr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經史子集'이라는 용어로 출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용사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과거에 존재하는 모든 문헌이 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佛經을 출전으로 하는 故事 또한 당연히 용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經書'와 같은 모호한 용어로 쓸데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용사의 출전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는 그 범위에 제한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것이다. 출전의 범위를 한정한 경우라고 알려진 『補閑集』의 언급을 통해 창작 텍스트의 성격이나 창작 상황에 따라 용사의 출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보기로 하자.

> 文安公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무릇 國朝의 制作에서 古事를 가져다 쓸 경우, 文은 六經과 三史[9], 詩는 『文選』과 李白·杜甫·韓愈·柳宗元에서 가져와야 하며 이외의 諸家 문집을 典據로 끌어다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셨다.[10]

용사의 출전을 엄격하게 제한한 兪升旦의 언급을 崔滋가 직접 인용한 부분이다. 이 말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莊子』나 蘇軾의 시문은 용사의 출전으로 부적당한 것이 된다. 기존연구 대부분은 유승단의 말이 모든 시문에 적용되는 원칙인 것처럼 해석하였으나 이는 '國朝制作'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은 결과이다.

'國朝'는 '國家'와 '朝廷'을 가리키는 동시에 '國政'이나 '朝政'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國朝制作'은 國政에 쓰이는 공식적인 詩文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유승단이 말한 출전의 제한은 조정의 공문서, 외교문서, 君臣 사이의 唱和, 외교 활동 시의 창작 등에 한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1] 유승단이 제시한 원칙이 일부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은 다음의 예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

9) "三史謂『史記』、『漢書』及『東觀記』也 (…) 自唐以来, 『東觀記』失伝, 乃以范蔚宗書当三史之一." (清 錢大昕, 『十駕斎養新録·三史』 권6)

10) "文安公常言: '凡爲國朝制作, 引用古事, 於文則六經、三史, 詩則『文選』、李、杜、韓、柳, 此外諸家文集不宜據引爲用.'" (崔滋, 『補閑集』, 卷中)

11) 이와 관련하여 梁 鍾嶸의 『詩品』에 보이는 "若乃經國文符, 應資博古, 撰德駁奏, 宜窮往烈. 至乎吟咏情性, 亦何貴於用事?"라는 언급이 참조가 된다.

www.kci.go.kr

한 시대의 이름난 검은 머리 재상도
한때는 푸른 머리털의 젊은 현량이었지.
一代黑頭名宰相, 當年綠髮少賢良.[12]

유승단이 趙冲을 추모하며 지은 시 가운데 조충이 蔭補로 벼슬에 나아가 정2품의 同中書門下侍郎平章事에 오른 것을 칭송한 구절이다. 出句에 보이는 '黑頭名宰相'은 젊은 나이에 높은 벼슬에 오를 만한 재주를 지녔다고 칭송된 王珣의 고사[13]를 가져다 쓴 것이다.

그런데 이 고사는 三史에 포함되지 않는 『晋書』에 나온다. 만약 유승단이 말한 출전의 제한을 모든 시문에 적용한다면, 유승단 자신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 유승단의 또 다른 시에도 陶淵明과 唐人의 시를 점화한 것이 보이는데,[14] 이 또한 유승단이 말한 출전의 제한이 특정 텍스트에만 해당된다는 증거가 된다.

유승단의 언급은 李奎報와 최자의 문학관을 대립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빌미가 되었다. 최자가 유승단의 언급을 직접 인용한 것은 물론 그 주장에 동의하였기 때문일 것인데, 여기에 다음과 같은 이규보의 언급을 대비시킴으로써 오해가 생겼던 것이다.

저는 아홉 살에야 비로소 책을 읽을 줄 알았으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시』, 『서』, 六經, 제자백가, 역사서에서부터 幽經, 僻典, 梵書, 道家의 說에 이르기까지 비록 근원과 핵심을 궁구하거나 은미한 것을 탐구하지는 못하였으나 涉獵하고 沈潛하여 꽃다운 것을 따다가 글

12) 兪升旦, 「次韻孫綸院扑哭趙平章冲」, 『東文選』 권13.
13) "珣字元琳, 弱冠與陳郡、謝玄爲桓溫掾, 俱爲溫所敬重. 嘗謂之曰: '謝掾年四十, 必擁旄杖節, 王掾當作黑頭公. 皆未易才也.'" (『晋書·王珣傳』 권65) 한편, 이 구절의 시어와 구법은 韓翃의 <送李中丞赴商州>에 보이는 "當年紫髯將, 他日黑頭公"과도 유사하다.
14) "前輩以兪參政「穴口寺」詩: '晦朔潮爲曆, 寒暄草記辰.' 爲工. 予嘗讀陶元亮詩: '雖無紀曆誌, 四時自成歲.' 唐人詩: '山僧不解數甲子, 一葉落知天地秋.' 古人有此等意思, 但兪之粧點自妙." (徐居正, 『東人詩話』 卷上) 唐人의 작품이라고 인용된 시는 唐庚의 『文錄』과 陳元靚의 『歲時廣記』(권3)에 보인다. 또한 유승단 시의 의경과 관련하여 『淮南子·說山訓』에 보이는 "以小明大, 見一葉落而知歲之將暮, 睹甁中之氷而知天下之寒."도 참조가 된다.

www.kci.go.kr

짓는 재료로 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15]

이규보는 儒家의 경전은 물론 幽經, 僻典, 梵書, 道家書까지 글 짓는 資用으로 삼았다고 하였는데[16] 이때의 '詞藻'는 당연히 詩文 전체를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 이와 달리 유승단의 언급은 館閣文字에만 해당되므로 이것을 가지고 최자와 이규보의 문학관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전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해볼 문제는 용사의 출전이 반드시 '문헌'이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 또한 꼭 그렇지는 않은데, 口傳으로 전해지는 것도 용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牧隱의 「貞觀吟」은 豪健하고 壯快한데 그 시의 한 연에 "주머니 속 물건일 뿐이라 말하더니, 화살에 눈이 멀 줄 어찌 알았으랴?(謂是囊中一物耳, 那知玄花落白羽)"라 하였다. '玄花'는 눈을 말한 것이고 '白羽'는 화살을 말한 것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에 안시성에 이르러 화살이 눈에 명중하는 바람에 돌아갔다고 한다.
>
> 그런데 『당서』와 『통감』을 살펴봐도 이 일이 실려 있지 않다. 비록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史官이 반드시 중국을 위하여 忌諱하였을 것이니 기록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것은 없다. 다만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도 실려 있지 않으니 목은 노인이 어디에서 이 고사를 가져왔는지 모르겠다.[17]

李穡의 詩句는 안시성 전투에서 당 태종이 양만춘의 화살에 한쪽 눈을

---

15) "僕自九齡始知讀書, 至今手不釋卷. 自『詩』、『書』、六經、諸子百家、史筆之文, 至於幽經、僻典、梵書、道家之說, 雖不得窮源探奧, 鉤索探隱, 亦莫不涉獵游泳, 採菁摭華, 以爲騁詞擒藻之具." (李奎報, 「上趙太尉書」, 『東國李相國集』(한국문집총간 1) 권26, 564c·d면) 이하 '한국문집총간'은 '총간'으로 약칭한다.

16) '幽經秘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幽經'은 仙家의 典籍을 가리킨다. 神仙術을 내용으로 하는 『相鶴經』을 '幽經'이라고도 한다. '僻典'은 '幽史僻典'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잘 알려지지 않은 典籍을 가리킨다.

17) "牧隱「貞觀吟」, 豪健快壯, 其一聯曰: '謂是囊中一物耳, 那知玄花落白羽?' '玄花'言其目, '白羽'言其箭. 世傳唐太宗伐高麗, 至安市城, 箭中其目而還. 考『唐書』、『通鑑』皆不載此事. 雖有之, 當時史官必爲中國諱, 無怪乎其不書也. 但金富軾『三國史』亦不載, 未知牧老何從得此" (徐居正, 『東人詩話』 卷下)

www.kci.go.kr

잃었다는 고사를 용사한 것이다. 그런데 이색의 「貞觀吟」 이전에 이러한 고사를 기록한 문헌이 현재로서는 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색이 가져다 쓴 고사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문헌이 존재하지 않으면 용사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사의 정당성 또한 확보되기 어렵다. 정확한 考究 없이 용사를 하다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18]만 보더라도 典據로서의 문헌이 지니는 중요성을 쉽사리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헌으로서의 출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용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서거정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떠한 史書에도 당 태종과 양만춘의 고사가 실려 있지 않다는 점에 의문을 나타낸 것은 이 때문이다. 李瀷은 반드시 詳考할 만한 문헌이 있었기에 이색이 이 고사를 용사했을 것이라 추측하였는데,[19] 이 또한 문헌에 기록된 것만이 용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깝다.

이와 달리 金宗直과 李睟光은, 이색이 원나라 유학 시절에 들은 바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여[20] 이색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朴趾源 또한 이색 시의 용사가 오래 전부터 전해진 이야기에서 나왔다고 보았다.[21] 즉 서거정이나 이익과는 달리 문헌이 아닌 구전에서 유래한 고사도 충분히 용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구전된 것도 용사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典據 문헌의 有無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용사를 이용하고 수용하는 언어·역사 공동체의 인식과 신념 체계가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22] 즉 일정한 언어와 역사를

---

18) "東岳竄明川登高詩曰: '鸚鵡文章何處用? 猘獜圖畵此生休. 金罍滿酌桑郎酒, 一洗淸湘萬古愁.' 語特悲壯. 晋人戱呼桑落酒爲索郎, 以桑與落切音爲索, 落與桑爲郎, 故互換稱之, 有若姓索之人耳. 今乃混稱桑郎, 恐未穩. 豈偶然失於考檢耶!" (金萬重, 『西浦漫筆』)

19) "唐太宗, 東征, 爲流矢所中, 目盲, 史官諱之. 故牧隱詩有'誰知白羽落玄花'之句, 麗末必有文字可考, 故云爾." (李瀷, 『星湖僿說·萬物門·木弩千步』 권5)

20) "太宗傷目之事, 不出史傳. 然公遊學中原, 豈有所聞耶!" 金宗直, 『靑丘風雅』(권2) 注. "李牧隱「貞觀行」曰'那知玄花落白羽', 謂唐太宗東征時被箭傷眼也. 此事雖不載於諸史, 而牧隱遊學于元朝, 必詳聞其事而乃有云云, 必非孟浪語耳." (李睟光, 『芝峯類說』 권16)

21) "三淵金公昌翕, 送其弟老稼齋昌業入燕詩曰: '千秋大膽楊萬春, 箭射虯髯落眸子.' 牧隱李公穡<貞觀吟>曰: '爲是囊中一物爾, 那知玄花落白羽.' '玄花'言其目, '白羽'言其箭. 二老所咏, 當出於吾東流傳之舊." (朴趾源, 「熱河日記·渡江錄」, 『燕巖集』(총간 252) 권11, 153d면)

22) 宋載邵, 「漢詩 用事의 比喩的 機能」, 『韓國漢文學硏究』 제8집, 韓國漢文學會, 1985, 293면.

www.kci.go.kr

공유하는 공동체에 의해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典範으로 인정된다면, 그 어떤 것도 용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구전되는 속담도 용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23]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출전으로서의 문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용사의 내용만큼이나 출전의 성격이 중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王安石의 시에 "한 줄기 강물이 밭을 보호하며 푸르게 둘렀고, 두 산이 문을 밀치며 푸른빛을 보내오네(一水護田將綠繞, 兩山排闥送靑來)"라 하였는데, 선배들이 '護田'과 '排闥'이 『漢書』에 나온다고 하였으니 용사가 정밀하고 절실하다.[24]

서거정은 『漢書』에 나오는 어구를 용사한 왕안석의 솜씨를 '精切'하다고 高評하였다. '護田'은 서역 지방에 군사를 두어 밭을 지키게 한 부분[25]에서 가져온 것이고 '排闥'은 한 고조가 병을 핑계로 신하들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번쾌가 궁궐 문을 밀치고 들어가 고조를 설득하였다는 고사[26]에 나오는 말이다.

그런데 '護田'과 '排闥'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은 왕안석 시의 내용과 상관이 없다. 서역의 실상이나 번쾌의 이야기가 왕안석의 시를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 시는 왕안석이 만년에 金陵에 거주하였을 때, 이웃에 살던 楊德逢의 집 벽에 써준 것이다.[27]

---

23) "權石洲爲詩家正宗, 而其遊戱之語, 亦皆出入. 嘗遊一寺, 適有盲客至, 石洲以詩贈之曰: '遠客來山寺, 秋風一杖輕. 直入沙門去, 丹靑四壁明.' 盖方言以盲爲遠, 又稱盲者之一杖, 又有盲人直入門之語, 又有盲人玩丹靑之語, 故云." (南龍翼, 『壺谷詩話』)

24) "半山詩: '一水護田將綠繞, 兩山排闥送靑來.' 前輩以謂'護田'、'排闥'出『漢書』, 用事精切." (徐居正, 『東人詩話』 卷上)

25) "自敦煌西至鹽澤, 往往起亭, 而輪臺、渠犁, 皆有田卒數百人, 置使者校尉領護." (『漢書·西域傳』)

26) "黥布反時, 高帝嘗病, 惡見人. 臥禁中, 詔戶者無得入群臣. 群臣絛、灌等莫敢入十餘日, 噲乃排闥直入, 大臣隨之. 上獨枕一宦者臥, 噲等見上, 流涕曰: '始陛下與臣等起豊、沛, 定天下, 何其壯也! 今天下已定, 又何憊也? 且陛下病甚, 大臣震恐. 不見臣等計事, 顧獨與一宦者絶乎? 且陛下獨不見趙高之事乎?' 高帝笑而起." (『漢書·樊噲傳』)

27) "茅檐長掃靜無苔, 花木成畦手自栽. 一水護田將綠繞, 兩山排闥送靑來." (王安石, 「書湖陰先生壁」(2수 중 1수), 『臨川先生文集』 권29)

www.kci.go.kr

따라서 '排闥'과 같은 시어는 창작의 상황과 잘 맞지 않는다. 거센 어감의 '排'도 부자연스럽지만 隱者가 사는 시골집의 지게문을 '闥'이라 한 것도 어색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안석이 '排闥'이라는 표현을 고집한 것은 '護田'과 더불어 工對를 이루려는 의도 때문이다. 즉 漢語와 漢語로 대우를 맞춰야 법식에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28] 이는 '護田'과 '排闥'의 출전인 『漢書』의 예스러움을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전이 지닌 특정한 성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때로는 시대의 風尙에 따라 용사의 출전이 제한되기도 하였으며, 출전의 성격 자체가 텍스트 전체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였다.

東溟 鄭斗卿이 일찍이 북평사가 되었을 때 마천령에 올라 절구 한 수를 지었는데, "마천령으로 말을 모니 층층 봉우리가 구름 속에 드는구나. 앞쪽에 큰 연못이 있는데 북해와 같다고들 하는구나(驅馬摩天嶺, 層峯上入雲. 前臨有大澤, 盖乃北海云)"라 하였다. 張維가 크게 칭송하며 우주를 떠받칠 만하다고 하였다.

일찍이 채유후가 정두경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마천령 시 한 수는 진실로 기이하다. 내 소견으로 어찌 감히 그대의 문장을 논하겠는가마는 다만 '有大澤' 세 글자를 '一泓水'로 고치는 게 어떻겠는가?" 하였다. 정두경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대는 사마천의 『史記』를 읽어보지 않았는가? 이 말이 『사기』의 「大宛傳」에 실려 있으니 내가 어찌 근거도 없이 멋대로 지었겠는가?" 하였다.

채유후가 집으로 돌아와 「대완전」을 찾아보니 "끝없이 큰 연못이 있는데, 북해와 같다고들 한다(臨大澤無涯, 盖乃北海云)"는 구절이 있었다. 이에 채유후가 찬탄하며 승복하고는 매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옛 책을 두루 읽지 않

28) "荊公詩用法甚嚴, 尤精於對偶. 嘗云: '用漢人語, 止可以漢人語對. 若叅以異代語, 便不相類.' 如此句護田、排闥之類, 皆漢人語也. 此法惟公用之, 不覺拘窘. 凡如'周顒宅在阿蘭若, 婁約身隨窣堵波', 皆以梵語對梵語, 亦此意. 嘗有人向公稱'自喜田園安五柳, 但嫌尸祝扰庚桑'之句, 以爲的對. 公笑曰: '伊但知柳對桑爲的, 然庚亦自是數, 盖以十干數之也." (宋 葉夢得, 『石林詩話』)

www.kci.go.kr

았다면 다른 사람의 글을 경솔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29]

정두경은 마천령에서 바라보이는 東海의 장관을 표현하기 위해 『史記』에 보이는 문장을 거의 그대로 용사하였다. 채유후는 바다를 '大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實景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이에 따라 '有大澤'을 '一泓水'로 고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일리가 있는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정두경이 채유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용사의 출전이 『史記』였기 때문이다. 사실 정두경이 용사한 부분은 '奄蔡'라는 낯선 지역을 소개한 짤막한 구절이어서 채유후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30] 바다를 연못으로 표현하는 부적절함과 출전의 궁벽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용사를 고집한 까닭은 바로 『史記』라는 출전이 지닌 古風 때문이었다.

해당 구절의 '盖乃'는 '擬'의 의미를 지닌 古語이고 '北海' 역시 先秦의 문장에서 큰 강이나 호수, 바다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된 어휘이다. 정두경 당대에는 復古의 논리가 유행하여 先秦과 兩漢의 문장을 용사하는 일이 많았다. 정두경은 이른바 '擬古'의 大家로 알려져 있거니와 古風에 가까운 느낌을 만들기 위해 용사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용사의 출전은 상황에 따라 그 범위와 중요성이 달라진다. 예컨대 견우와 직녀 이야기는 용사의 내용에 따라 출전이 달라진다. 만약 견우와 직녀가 칠석에 만난다는 의경이나 '乞巧'라는 어휘가 보인다면, 그 출전은 梁 宗懍이 지은 『荊楚歲時記』가 된다.[31] 이와 달리 견우와 직녀가 헤어진 채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용사한 경우라면 그 출전을 정확히 꼬집어 말하기 어렵다. 『荊楚歲時記』보다 훨씬 앞선 『詩經·

29) "鄭東溟斗恒, 嘗爲北評事, 登摩天嶺, 有一絶曰: '驅馬摩天嶺, 層峯上入雲. 前臨有大澤, 盖乃北海云.' 谿谷大加稱賞, 以爲可撑柱宇宙云. 蔡湖洲嘗謂東溟曰: '子之<摩天嶺>一絶, 固奇, 以余管見, 何敢議子文章? 第'有大澤'三字, 若改以一泓水則何如?' 東溟笑曰: '君不讀馬『史』耶? 此語在馬『史』<大宛傳>, 我豈無所據而杜撰耶?' 蔡還家, 考閱<大宛傳>, 有曰: '臨大澤無涯, 盖乃北海云.' 蔡始乃歎服, 每語人曰: '苟不遍觀古書, 信不可輕議人製作'云." 任堕, 『水村謾錄』.

30) "奄蔡在康居西北可二千里, 行國, 與康居大同俗. 控弦者十餘萬. 臨大澤, 無崖, 蓋乃北海云." 『史記·大宛傳』

31) "七月七日爲牽牛、織女聚會之夜. 是夕, 人家婦女結綵縷, 穿七孔鍼, 或以金銀鍮石爲鍼, 陳瓜果於庭中以乞巧, 有喜子網於瓜上則以爲符應." 梁 宗懍, 『荊楚歲時記』.

www.kci.go.kr

小旻之什·大東』이나 「古詩十九首 에 해당 고사가 보일 뿐만 아니라 구전에 의한 異形態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용사의 출전 범위는 용사의 내용, 창작 텍스트의 성격, 언어·역사 공동체의 신념 체계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3. '事'의 의미와 범주

'用事'를 직역하면 '事를 이용한다'는 뜻이므로 '事'의 의미를 밝히는 것은 용사의 개념을 정의하는 관건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이 崔滋의 언급이다. 최자는 『補閑集』에서 "무릇 고사를 이용하는 것은 같지 않으니 혹은 名號를, 혹은 言行을 쓴다"[32]고 한 뒤 古人名, 古官名, 古人事, 古人語를 용사한 예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자세하게 용사의 하위범주를 구분한 것은 최자의 경우가 유일하다. 따라서 최자의 언급에 많은 관심이 쏟아진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최자가 말한 人名, 官名, 人事, 人語를 '事'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최자의 언급을 직역한 데서 비롯한 잘못이다. "이것은 옛사람의 이름을 쓴 것이다(此用古人名)"라는 최자의 말을 문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古人名'을 '事'라고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다.

① 늙은 도잠은 바야흐로 술을 끊었고
게을러진 두보는 머리를 빗지 않았네.
老去陶潛方止酒, 慵多杜叟不梳頭.

② 동굴 속의 진나라 박사가 될 것이지,
어찌 무덤 위의 한나라 정서장군이 되려는가?
要作洞中秦博士, 何須墓上漢征西.

32) "凡用故事不同, 或名號, 或言行. 大抵用事之聯, 罕有新意, 唯假借爲用, 如有新意, 然失實." 崔滋, 『補閑集』, 卷下.

www.kci.go.kr

위는 모두 이인로의 시인데, 최자는 ①에 대하여 “이것은 옛사람의 이름을 이용한 것이다(此用古人名)”라는 해설을, ②에 대해서는 “이것은 옛사람의 관직(이름)을 이용한 것이다(用古人官)”라는 해설을 달았다. 그런데 실상 ①과 ②의 용사 대상은 ‘名號’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즉 특정 인물과 관련된 ‘故事’에 해당한다.

①은 陶淵明이 노년에 이르러 술을 끊고 「止酒 라는 시를 지은 일[33]과 杜甫가 만년에 疏懶하여 한 달이 지나도록 머리를 빗지 않은 일[34]을 용사한 것이다. 이 구절을 용사구로 볼 수 있는 근거는 ‘陶潛’과 ‘杜叟’라는 人名에 있지 않다. 도연명과 두보라는 인물의 특정한 행적, 즉 ‘止酒’와 ‘不梳頭’가 결합되어야만 용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② 역시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秦博士’라는 말과 ‘漢征西’라는 말만 가지고 이 구절을 용사구라 판단할 수는 없다. 出句는 秦의 博士였던 盧敖의 행적을 용사한 것이다. 노오는 진시황의 폭정을 비판한 뒤 故山의 休粮洞으로 도망친 인물이다. 분노한 진시황이 노오를 붙잡아 들이라 명하였으나 결국 노오를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후 故山은 盧山으로, 休粮洞은 盧山洞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對句에 보이는 ‘漢征西’는 자신의 묘비에 ‘漢故征西將軍曹侯之墓’라 쓰고 싶어 했던 曹操를 가리킨다.[35] 따라서 ‘秦博士’와 ‘漢征西’만으로는 ②를 용사구로 볼 수 없다. 여기에 ‘洞中’과 ‘墓上’이 결합되어야만 용사의 대상인 故事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즉 역사적 인물의 행적을 가져다 썼다는 점에서 ①과 ②에 활용된 ‘事’의 성격은 동일하다. ①과 ②가 다른 것은 고사를 이용하기 위해 人名과 官名

33) “居止次城邑, 逍遙自閑止. 坐止高蔭下, 步止蓽門裏. 好味止園葵, 大歡止稚子. 平生不止酒 止酒情無喜. 暮止不安寢, 晨止不能起. 日月欲止之, 營衛止不理. 徒知止不樂, 未信止利己. 始覺止爲善, 今朝眞止矣. 從此一止去, 將止扶桑涘. 淸顔止宿容, 奚止千萬祀.” (陶淵明, 「止酒」, 『陶淵明詩全集』 권2)

34) “百年渾得醉, 一月不梳頭.” (杜甫, 「屛跡」(3수 중 2수), 『全唐詩』 권227)

35) 曹操의 「讓縣自明本志令」에 “爲國家討賊立功, 欲望封侯作征西將軍, 然後題墓道言: ‘漢故征西將軍曹侯之墓.’ 此其志也.”라 하였다. 이인로의 시는 蘇軾의 「西太一見王荊公舊詩, 偶次其韻」(2수 중 2수)에 보이는 “但有樽中若下, 何須墓上征西?”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도 하다.

www.kci.go.kr

을 활용하였다는 점뿐이다. 즉 이것은 '事'의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用'의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인명, 지명, 관명 등을 '事'의 하위범주로 보게 되면 단순히 고유명사만을 가져다 쓴 것까지 용사에 포함시키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 詩僧 元湛이 내게 말하기를, "요즘 사대부들은 시를 지음에 다른 지역의 인물과 지명에 의탁하여 우리나라의 사실로 삼아버리니 우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文順公의 「남쪽에서 노닐며」라는 시에 '가을 서리는 吳의 나무를 물들이고, 저물녘 비는 楚의 산에 어둠을 불러오네(秋霜染盡吳中樹, 暮雨昏來楚外山)'라 하였는데 비록 말 만든 것이 맑고 高遠하나 吳와 楚는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어떤 선배의 「松都에서 일찍 출발하며」라는 시에 '처음 馬坂에 갈 땐 人家의 연기 피어오르더니, 駱駝橋를 지나자 산수의 흥취가 일어나네'라고 하였는데 말이 새롭고 뜻이 좋으며 言辭가 매우 的實하니 (문순공의 시는) 이만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
> 내가 "대개 시인의 용사는 그 근본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니 다만 뜻을 빗댈 뿐이라네. 더구나 천하가 한 집안이며 같은 문자로 글을 짓는 마당에 어찌 피차에 간격이 있겠는가?"라고 대답하였더니 원담이 승복하였다.[36]

원담은 본래의 지명인 黃鸝(지금의 驪州)를 吳와 楚라고 표현한 이규보의 시[37]를 비판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명을 그대로 가져다 쓴 前輩의 시를 더 높이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최자는 이규보 시의 창작 방법을 '用事'라 보고 吳와 楚라는 말의 본래 뜻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과연 이 구절을 용사구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규보의 시는 客愁에 잠긴 자신을 李秀才가 위로해준다는 내용으로 이

---

36) "詩僧元湛謂予云: '今之士大夫作詩, 遠託異域人物地名, 以爲本朝事實, 可笑. 如文順公「南遊」曰: '秋霜染盡吳中樹, 暮雨昏來楚外山.' 雖造語淸遠, 吳、楚非我地也. 未若前輩「松京早發」云: '初行馬坂人烟動, 及過駝橋野意生.' 非特辭新趣勝, 言辭甚的.' 予答曰: '凡詩人用事不必泥其本, 但寓意而已. 況復天下一家, 翰墨同文, 胡彼此之有間?' 僧服之." (崔滋, 『補閑集』 卷中)

37) "歲半東遊歲杪還, 光陰空擲道途間. 秋霜染盡吳中樹, 暮雨昏來楚外山. 橐底酒錢渾罄倒, 篋中詩卷更追刪. 多君獨唁羈離客, 置酒仍呼兩小鬟." (李奎報, 「復黃驪, 示李秀才」, 『東國李相國集』(총간 1) 권6, 358b면)

www.kci.go.kr

루어져 있는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이 '客地'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吳와 楚라는 어휘를 사용한 것이다. 中原의 남쪽에 속하는 吳와 楚는 전통적으로 異域이나 他鄕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여행, 피난, 유배 등의 상황에서 고향이나 수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吳와 楚를 가져다 썼던 것이다.

인용문에도 '寓意'라는 말이 보이듯이, 이규보의 시는 吳와 楚의 관습적인 의미, 즉 상징성을 이용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다른 것에 빗대어 본래의 뜻을 드러내는 비유와 상징까지 용사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38] 이럴 경우 용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개념 규정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유명사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구절의 작법을 용사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事'의 의미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논자에 따라서는 기상·운율·사상·언어 등 문체를 배우는 것까지 용사에 포함시키기도 하나[39] 이는 '事'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事'의 범주는 크게 역사적 典範의 성격을 지니는 사건, 지식, 주장, 형상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건'을 용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차가운 한고대의 노리개, 강에 이르러 사라지고
> 우뚝한 금곡루의 미녀, 땅에 떨어져 향기롭네.
> 漢皐佩冷臨江失, 金谷樓危到地香.

인용문은 용사가 精切하다고 평가된 宋庠의 「落花 [40]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고사가 이용되었다. 出句는 鄭交甫가 漢皐臺 아래에서 미녀를 만나 노리개를 얻었는데, 뒤돌아 수십 보를 걸어가자 노리개와 미녀가 모두 사라졌다는 고사[41]를 쓴 것이고 對句는 참소로 잡혀가는 石崇을 안타까워하여

38) '용사'와 '比'의 차이에 대해서는 金元中, 「用事攷:『文心雕龍』을 中心으로」, 『中國語文學』 제23집, 嶺南中國語文學會, 1994, 32면 참조.
39) 李和炯, 「崔滋의 新意와 用事에 대한 再考」, 『語文硏究』 제32권 제3호, 韓國語文敎育硏究會, 2004, 384면.
40) "宋莒公「落花」詩: '漢皐佩冷臨江失, 金谷樓危到地香.' (…) 其用事精切." (徐居正, 『東人詩話』 卷上)
41) 『文選』에 실린 張衡의 「南都賦」에 "耕父揚光於淸泠之淵, 游女弄珠於漢皐之曲."이라 하였는

www.kci.go.kr

金谷園의 누대에서 몸을 던진 綠珠의 고사[42]를 이용한 것이다. 선녀의 노리개와 누대에서 떨어진 미녀를 끌어들여 落花의 아름다움과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다.

이 시에 쓰인 두 가지 '事'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故事'라 할 수 있다. 즉 '事'의 첫 번째 범주를 역사적 사건이라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석숭의 고사는 사실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정교보의 고사는 허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의 첫 번째 범주인 '역사적 사건'에는 사실과 허구가 모두 포함된다.

물론 허구적인 사건을 용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李瀷은 "견우와 직녀 이야기 그 얼마나 황당한가? 망령된 이야기 하늘에까지 미치니 이보다 더한 모독이 없도다"[43]라 하였는데, 이는 상상에서 나온 허구를 용사로 쓸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매우 드문 것이어서, 대부분의 시문에서는 상상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거리낌 없이 용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앞서 출전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은 것과 같다. 즉 용사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진실이냐 허구냐가 아니라 용사를 창조하고 수용하는 공동체의 인식과 신념 구조이다.

한문 공동체라는 범주를 동아시아 일반으로 확대하면 우리나라의 고사는 용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공동체의 범위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지리 등을 용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정약용의 주장[44]에서 알 수 있듯이, '事'와 출전의 범주는 공동체의 성격에

데 李善은 『韓詩外傳』을 인용하여 "鄭交甫將南適楚, 遵波漢皐臺下, 乃遇二女, 佩兩珠, 大如荊鷄之卵."이라 注하였다. 한편 『列仙傳』에는 "江妃二女, 游于江濱, 見鄭交甫, 遂解佩與之. 交甫受佩而去, 數十步, 懷中無佩, 女亦不見."이라 하였다.

42) "時趙王倫專權, 崇甥歐陽建與倫有隙. 崇有妓曰綠珠, 美而艷, 善吹笛, 孫秀使人求之. 崇時在金谷別館, 方登涼臺, 臨淸流, 婦人侍側. 使者以告 (…) 崇竟不許. 秀怒, 乃勸倫誅崇、建. 崇、建亦潛知其計, 乃與黃門郎潘岳陰勸淮南王允、齊王冏以圖倫、秀. 秀覺之, 遂矯詔收崇及潘岳、歐陽建等. 崇正宴於樓上, 介士到門. 崇謂綠珠曰: '我今爲爾得罪.' 綠珠泣曰: '當效死於官前.' 因自投于樓下而死." (『晋書·石崇傳』)

43) "牽牛織女何荒唐? 妄說干天無已瀆." (李瀷, 「七夕詞」, 『星湖集』(총간 198) 권1, 62c면)

44) "雖然, 我邦之人動用中國之事, 亦是陋品. 須取『三國史』、『高麗史』、『國朝寶鑑』、『輿地勝覽』、『懲毖錄』、『燃藜述』, 及他東方文字, 採其事實, 考其地方, 入於詩用, 然後方可以名世而傳後." (丁若鏞, 「寄淵兒」, 『與猶堂全書』(총간 281) 第一集, 권21, 453b·c면)

www.kci.go.kr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다음의 예는 소수의 공동체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용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 병술년(1466) 등준시에서 괴애 김수온이 壯元(갑과1등)을 하였고 진산 강희맹이 榜眼(갑과2등)을 하였으며 나 서거정이 探花(갑과3등)를 하였다. (내가) 일찍이 강희맹에게 시를 부치기를, "등준시에서 방안에 뽑힌 어진 이, 젊은 나이에 공을 세워 능연각을 빛내네. 3월에 꽃을 찾으며 시절이 늦음을 한탄하노니, 가장 꽃이 아름다운 시절은 2월이라네"라 하였는데 대개 貞肅公 金仁鏡의 고사를 쓴 것이다.
>
> 고려 明宗 때 김인경이 詞賦의 재주를 자부하여 항상 장원을 하리라 여겼다. 諫議 金君綏가 장원에 뽑히고 정숙공 김인경은 2등에 머물렀는데 (김인경은) 大臣의 지위에 올랐어도 이를 불만스러워 하였다. 조카인 장원 황보관이 집에서 장원들의 모임을 열자 (김인경이) 시를 부치기를, "그대 집에서 귀빈들 잔치를 한다던데, 계수나무 숲은 온통 한 가지로 봄이겠구나. 훌륭한 모임에 참가하고 싶지만 분수가 아니니, 그때 2등에 머문 것이 한스럽구나"라 하였다. 간의 김군수가 차운하기를, "합격 명단을 귀빈에 비교하지 말게나, 꽃나무 가지는 철따라 차례로 핀다네. 정월은 아직 춥고 3월은 따뜻하니 2월의 꽃이 사람에겐 가장 좋다네"라 하였다. 대개 정월로 장원을, 2월로 2등을, 3월로 3등을 비유한 것이다.[45]

서거정이 강희맹에게 부친 시를 이해하려면 김인경과 김군수가 주고받은 시와 그 배경이 되는 고사를 알아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설명이 없었다면 서거정의 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위 내용을 모르는 독자들은 서거정의 시에 어떠한 용사가 쓰였는지를 알아낼 도리가 없

45) "丙戌登俊試, 金乖崖守溫爲壯元, 姜晉山希孟爲榜眼, 居正添爲探花. 嘗寄晉山詩云: '登俊科中榜眼賢, 黑頭勳業照凌烟. 探花三月嗟遲晩, 最好芳菲二月天.' 盖用金貞肅仁鏡故事. 高麗明王時, 仁鏡以詞賦自負, 常擬龍頭. 金諫議君綏擢壯元, 貞肅居亞元, 位至卿相尙怏怏. 甥皇甫壯元瑝, 家設龍頭會, 寄詩云: '聞道君家宴貴賓, 桂林渾是一枝春. 欲參高會慙非分, 却恨當年第二人.' 金諫議次韻: '莫將金榜較嘉賓, 入律花枝次第春. 正月尙寒三月暖, 芳菲二月最宜人.' 盖以正月比狀頭, 二月亞元, 三月探花也." (徐居正, 『東人詩話』 卷下)

www.kci.go.kr

다.

그러나 서거정의 시를 읽는 가장 중요한 독자는 강희맹이다. 서거정은 강희맹이 김인경과 김군수의 고사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었기에 이러한 용사를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거정의 예는 개인적인 성격을 지닌 고사 또한 용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용사를 쓰고 수용하는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 '事'의 범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事'에 속하는 두 번째 범주는 선행 텍스트에 보이는 지식(정보)과 주장(의견)이다. 이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취한 이는 수레에서 떨어져도 술 때문에 멀쩡한 법이니
항아리를 고집한 노인에게 두레박이 무슨 소용이랴?
墮車醉者只全酒, 把甕丈人寧有機.[46]

② 양고기 익는 것처럼 빠른 세월에 놀라는데
학이 나는 하늘처럼 좋은 글 지으려 다시 모였네.
歲月屢驚羊胛熟, 風騷重會鶴天寒.[47]

①의 對句는 항아리로 힘들게 우물물을 긷는 노인을 본 子貢이 왜 두레박을 쓰지 않느냐고 묻자, 이에 노인이 두레박을 쓰면 요령을 부리게 되어 순수한 마음을 보전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는 고사[48]를 가져다 쓴 것이다. 이는 子貢과 노인의 만남이라는 사건을 용사한 것이므로 이때의 '事'는 앞서 살펴본 '역사적 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出句에 보이는 용사는 이와 성격이 다르다. 『列子』에는 外物에

46) 李奎報, 「辛酉五月, 草堂端居無事, 理園掃地之暇, 讀杜詩, 用成都草堂詩韻, 書閑適之樂」(5수 중 5수), 『東國李相國集』(총간 1) 권10, 397c면.
47) 林椿, 「與李眉叟會湛之家」, 『東文選』 권13.
48) "子貢南遊於楚, 反於晉, 過漢陰. 見一丈人方將爲圃畦, 鑿隧而入井, 抱甕而出灌, 搰搰然用力甚多,而見功寡. 子貢曰: '有械於此, 一日浸百畦, 用力甚寡而見功多, 夫子不欲乎?' 爲圃者仰而視之曰: '奈何?' 曰: '鑿木爲機, 後重前輕, 挈水若抽, 數如泆湯, 其名爲槔.' 爲圃者忿然作色而笑曰: '吾聞之吾師, 有機械者, 心有機事, 有機事者, 必有機心. 機心存於胸中, 則純白不備, 純白不備, 則神生不定, 神生不定者, 道之所不載也. 吾非不知, 羞而不爲也.' 子貢瞞然慙, 俯而不對." (『莊子·天地』)

www.kci.go.kr

의해 心身을 다치지 않으려면 하늘로부터 받은 순수한 기운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보인다. 列子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술에 취한 사람은 수레에서 떨어지더라도 죽거나 다치지 않는다는 예시를 제시하였다. 즉 일상에서 경험할 개연성이 있는 사건을 주장의 증거로 삼은 것이다.[49] 따라서 이 구절에 이용된 '事'는 외물에 얽매이지 말고 천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②에 쓰인 용사의 대상은 역사서에 기록된 '사실'이다. 『新唐書』에 의하면 瀚海 북쪽에 있는 骨利干이라는 지역은 해가 뜨는 곳과 매우 가까워 낮이 대단히 길다고 한다. 낮이 긴 만큼 밤은 매우 짧을 수밖에 없는데, 해가 지자마자 양의 어깨살을 삶으면 그것이 익을 때쯤 벌써 동이 튼다고 하였다.[50] 『新唐書』의 기록 이후 '羊胛熟'은 세월이 매우 빠름을 의미하는 成語가 되었다.[51] '羊胛熟'은 특정한 사건과는 상관이 없는 지리적 '事實'에 해당한다. 즉 역사서에 전하는 정보 또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事'의 한 범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對句에 보이는 '鶴天'은 높은 하늘이나 또는 그러한 경지를 의미하는데, 그 출전은 杜牧의 「雪晴, 訪趙嘏街西所居, 三韻 [52]이다. 두목은 趙嘏의 글재주를 이백과 두보에 견주었는데[53] 임춘이 이를 다시 이용하여 새로운 의경을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林椿이 이용한 '事'는 두목의 시에 보이는 시어와 의경이라고 할 수 있다.

---

49) "列子問關尹曰: '至人潛行不空, 蹈火不熱, 行乎萬物之上而不慄. 請問何以至於此?' 關尹曰: '是純氣之守也, 非智巧果敢之列. (…) 夫醉者之墜於車也, 雖疾不死. 骨節與人同, 而犯害與人異, 其神全也. 乘亦弗知也, 墜亦弗知也. 死生驚懼, 不入乎其胸, 是故逆物而不慴. 彼得全於酒, 而猶若是, 而況得全於天乎? 聖人藏於天, 故物莫之能傷也.'" (『列子·皇帝』)

50) "骨利干, 處瀚海北 (…) 又北度海, 則晝長夜短. 日入烹羊胛, 熟, 東方已明, 蓋近日出處也." (『新唐書·回鶻傳下·骨利干』)

51) 歐陽修의 「謝觀文王尙書擧正惠西京牡丹」(『居士集』 권7)에 "爾來不覺三十年, 歲月纔如熟羊胛"이라 하였고 趙端行의 「少稷賦十二相屬詩戲贈」(『全宋詩』 권1)에 "走馬章臺憶舊游, 歲月纔驚羊胛熟"이라 하였다.

52) "命代風騷將, 誰登李、杜壇? 少陵鯨海動, 翰苑鶴天寒. 今日訪君還有意, 三條氷雪獨來看." (杜牧, 「雪晴, 訪趙嘏街西所居, 三韻」, 『全唐詩』 권521)

53) 馮集梧는 두목의 시에 대해 "『唐書·李白傳』: '玄宗召見金鑾殿, 詔供奉翰林.' 裵敬「翰林學士李公墓碑」: '爲詩格高旨遠, 若在天上物外, 神仙會集, 雲行鶴駕, 想見飄然之狀.'"이라 注하였다.

www.kci.go.kr

이를 통해 뜻을 형상화하는 방식 또한 용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事'의 세 번째 범주가 된다. 그런데 선행 텍스트에 쓰인 '형상화 방식'을 가져다 쓰는 것을 용사가 아닌 '點化'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논란이 된다.

> 점화는 前人의 시구에 나타난 뜻을 변화시켜 사용한다는 점에서 고사를 인용하는 것을 일컫는 용사와 혼동하기 쉬우나, 용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다만 전인의 시구에 나타난 뜻에 발전적으로 변화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고사를 이끌어다 씀으로써 자기의 시문이나 자기 말의 내용을 더욱 뜻 깊고 알차게 한다는 의미로서의 용사와는 일정하게 구별되는 용어라고 하겠다.[54]

이에 따르면 선행 한시의 시어나 의경에 모종의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시어나 의경으로 탈바꿈하는 경우는 용사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비록 점화라는 용어를 한시라는 갈래에 국한된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잘못을 보이지만[55] 위의 견해는 상당한 근거를 지니고 있다.

그 근거는 선행 텍스트를 이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사건, 지식, 주장을 쓸 경우에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나게 하는 분명한 장치가 필요하다. 즉 모종의 고사가 쓰였음을 어떤 식으로든 확인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형상화 방식을 빌려 쓰는 경우에는 누구의 어떠한 시문을 가져다 쓴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러한 흔적을 감추어야 더욱 훌륭하다고 평가된다. 용사와 점화를 구분하는 견해는 바로 이러한 차이를 강조하는 데서 비롯한다.

---

54) 鄭堯一, 「點化·蹈襲·換骨奪胎·點鐵成金의 槪念 硏究」, 『漢文敎育硏究』 제1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6, 337면.

55) 산문을 지을 때도 점화가 사용되므로 '용사'를 한시 창작의 한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컨대 李瀷은 李華의 「弔古戰場文」이 賈捐之의 「議罷珠崖疏」를 점화한 것이라 하였다. "李華「弔戰場文」, 令人悽咽, 其意本於賈捐之 (…) 演爲一篇, 點化亦佳." (李瀷, 『星湖僿說』, 권30)

www.kci.go.kr

그러나 고전비평에서 용사와 점화의 용어가 명확히 구분되어 쓰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화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점화를 표절이나 도습과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모호하거니와 기상, 풍격, 체재 등을 본받는 것까지 점화에 포함시킨 사례 또한 많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일단 점화를 용사의 하위범주로 보았으나, 용사와 점화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4. '假用', '借用', '反用'의 의미

앞서 살펴본 용사의 정의 가운데 최신호가 언급한 "二·三의 語彙에 集約시켜"는 곧 '用'의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敍事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용사할 경우에는 인물, 사건, 배경 등을 모두 가져다 쓸 수 없으므로 당연히 축약의 방법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 '請纓', '五柳', '七縱七擒'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 가운데 일부를 선택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전체 서사의 맥락을 축약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 텍스트에 나타난 지식(정보), 주장(의견) 등을 가져다 쓸 경우에는 반드시 축약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문장의 구조를 조금만 바꾸어 쓰더라도 의미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소문의 형태로 諫言을 올리면서 경전의 해당 부분을 변개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도 많다.

'用'의 의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최자의 『보한집』에 보이는 '假用'과 '借用', 서거정의 『동인시화』에 보이는 '反用'이라는 용어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假用'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쓰는 것이고 '借用'은 고사의 배경 이야기를 도려낸 채 어구적 의미만을 가져다 쓰는 것이다.[56] '反用'은 원전의 뜻을 거꾸로 뒤집어 이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가운데 먼저 '假用'의 의미와 실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56) 김성룡, 「시학과 글쓰기: 剽竊과 換骨奪胎 사이」, 『작문연구』 제6집, 한국작문학회, 2008, 232면.

www.kci.go.kr

열에 붙고자 기꺼이 氷氏子를 좇더니
절교를 당함에 괜스레 孔方兄을 원망하네.
附熱肯追氷氏子, 絶交偏恨孔方兄.

최자는 위에 인용된 이인로 시의 용사에 대하여 "이것은 이름을 假託하여 이용한 것이다(此假用名)"라는 해설을 붙였다. '氷氏子'와 '孔方兄'은 얼음과 돈을 의인화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이처럼 사물을 의인화한 것을 가리켜 '假用'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假'라는 말은 해당 구절에서 용사가 이루어진 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즉 '氷氏子'와 '孔方兄'이라는 어휘는 이 구절에 용사가 쓰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구절에 쓰인 용사를 이해하려면 詩語가 아닌 意境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出句의 용사에 대해 알아보자. '附熱'은 권세에 붙좇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附炎'이나 '附炎趨熱'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氷氏子'에 얽힌 고사는 晋 王沈이 寓話 형식을 빌려 자신의 不遇한 처지를 그린 「釋時論 57)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氷氏子, 즉 얼음이 추위에서 벗어나 熱을 얻기 위해 沍寒之谷을 떠나 煌煌之堂으로 가는 도중에 東野丈人을 만난다. 氷氏子의 사정을 들은 東野丈人은 지금 爐冶之門에 들 수 있는 자는 挾炭之子뿐이라며 氷氏子를 만류한다. 時勢가 자신에게 맞지 않음을 깨달은 氷氏子는 素心으로 돌아가 彈琴咏典하며 남은 생을 보전하리라 결심한다." 이에 따르면, 出句의 뜻은 '附熱'하려 했던 氷氏子처럼 權勢에 아부하였다는 뜻이 된다.

對句에 보이는 '孔方兄'은 동전, 즉 돈의 별칭이다. 바깥 모양이 둥글고 안에 네모난 구멍이 있어서 '孔方'이라 하는데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동전을 형처럼 가깝게 여긴다는 뜻이 보태져 '孔方兄'이라는 별칭이 생긴 것이다.58)

57) "王沈, 字彦伯, 高平人也. 少有俊才, 出于寒素, 不能隨俗沈浮, 爲時豪所抑. 仕郡文學掾, 郁郁不得志, 乃作「釋時論」." (『晋書·文苑列傳·王沈』 권92)
58) "錢之爲體, 有乾坤之象, 內則其方, 外則其圓 (…) 爲世神寶, 親之如兄, 字曰'孔方', 失之則貧弱, 得之則富昌." (晋 魯褒, 「錢神論」, 『晋書·隱逸列傳·魯褒』 권94) 이와 달리 '錢'의 旁에 해

www.kci.go.kr

그런데 사실 對句의 내용은 '孔方兄'이라는 별칭의 내력과 큰 상관이 없다. 이 구절에 쓰인 용사의 대상은 黃庭堅의 「戲呈孔毅父 이다. 이 시는 黃庭堅이 조정에 죄를 지어 降職된 뒤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점 疏遠해지자 지은 것인데, 여기에 "管城子無食肉相, 孔方兄有絶交書"라는 구절이 보인다. 붓을 의인화한 명칭인 '管城子'는 황정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시문이나 지을 뿐 높은 벼슬에 오를 운명이 아니라는 自嘲를 담아낸 것이다. '孔方兄'은 권세와 부귀를 좇아 자신과 멀어진 친구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황정견 시의 對句는 더 이상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된 친구들이 자신에게 절교의 편지를 보낸다는 뜻이 된다.[59]

이인로 시의 意境은 王沈의 「釋時論」과 黃庭堅의 「戲呈孔毅父」에 보이는 내용을 가져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假用'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단순히 사물을 의인화한 어휘를 썼다는 점만 가지고는 용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假用'을 용사의 한 방법으로 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다음으로 '借用'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최자는 '假用'을 풀이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인로의 시를 예로 들었는데, 해당 구절은 아래와 같다.

> 세상 인정 깊고 얕은 것은 일찍이 손가락을 담근 듯 알았고
> 인생의 얻고 잃음은 이미 올가미를 잊은 것처럼 잊었다네.
> 世味淺深曾染指, 人生得失已忘蹄.

최자는 위 시구에 대해 "'손가락을 담근다'는 것은 옛사람의 일을 빌려서 쓴 것이고 '올가미를 잊는다'는 것은 옛사람의 말을 빌려서 쓴 것이다('染指'借用古人事, '忘蹄'借用古人語)"라고 하였다. 즉 '染指'와 '忘蹄'가 借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染指'는 솥 안에 손가락을 넣어 국물 맛을 본다는 뜻으로, 『左傳』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鄭

당하는 '戈戈'의 발음이 '哥哥'와 같아서 '兄'이라 한다는 설도 있다.

59) 山濤가 竹林의 맹세를 배신하고 부귀영화를 좇으려 하자 嵇康이 「與山巨源絶交書」를 지었다. "山濤將去選官, 擧康自代. 康乃與濤書告絶." (『晋書·嵇康傳』 권49)

www.kci.go.kr

나라 靈公이 자라로 국을 끓이자 子公이 자신에게도 그것을 나눠줄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靈公이 국을 나눠주지 않자 화가 난 子公은 솥에 손가락을 담가 맛을 보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에 분노한 靈公이 子公을 죽이려 하였으나 子公이 한발 앞서 靈公을 弑害하였다."[60]

그런데 인용된 구절의 '染指'는 이러한 의미와 상관없이 단순히 '맛을 보다'는 뜻만을 지니기에 '借用'이라는 것이다. 고사가 널리 알려지고 자주 이용되면 하나의 관용구처럼 쓰이게 되는데, 인용된 구절이 바로 이것을 이용한 것이다.

한편 '忘蹄'는 '토끼를 잡으면 올가미를 잊어버린다'는 뜻으로, '뜻을 얻으면 말을 잊어버린다'는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논거로 쓰인 말이다.[61] 이는 목적과 도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해당하는데, 인용된 구절은 이와 상관없이 단순히 '잊는다'는 뜻으로 가져다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成語라 알려진 것들에서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을 빼버리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染指'의 경우, 靈公과 子公의 고사 이후 보통 '부당한 이득을 구함'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지만 이와는 달리 '전체가 아닌 부분을 맛보다'라는 뜻도 지니게 되었다. '忘蹄' 또한 단순히 '잊다'라는 뜻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외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나 '완전히 잊어버려 신경 쓰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다'는 뜻까지 포함된다. 이는 모두 원래의 고사에서 연유한 의미이므로 이것까지 배제한 용사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事'의 본래적 의미에서 파생된 부수적 의미를 가져다 쓰는 것을 '借用'이라 보는 것이 온당하다.

다음으로 '反用'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反用'은 '飜案'이라고도 하는데, 서거정은 崔瀣의 시를 예로 들어 '反用'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풀이하였다.

---

60) "楚人獻黿於鄭靈公. 公子宋與子家將見. 子公之食指動, 以示子家, 曰: '他日我如此, 必嘗異味.' 及入, 宰夫將解黿, 相視而笑. 公問之, 子家以告. 及食大夫黿, 召子公而弗與也. 子公怒, 染指於鼎, 嘗之而出. 公怒, 欲殺子公. 子公與子家謀先. 子家曰: '畜老, 猶憚殺之, 而況君乎?' 反譖子家. 子家懼而從之. 夏, 弑靈公." (『左傳·宣公·4년』)

61) "荃者所以在魚, 得魚而忘荃; 蹄者所以在兔, 得兔而忘蹄; 言者所以在意, 得意而忘言. 吾安得忘言之人而與之言哉?" (『莊子·外物』)

www.kci.go.kr

옛사람들은 전고를 쓸 때에 (원래의 뜻) 그대로 쓰기도 하고 그 뜻을 반대로 하여 쓰기도 하였다. 전고를 그대로 쓰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뜻을 반대로 하여 쓰는 것은 재주가 탁월하지 않으면 (이에) 도달할 수 없다.

졸옹 최해의 「태공이 주나라를 낚다」라는 시에 "그때 잡은 낚싯대에 바늘이 없었으니, 물고기를 잡으려는 뜻도 없었는데 하물며 주나라를 낚으려 했겠는가? 마침내 문왕을 만난 것은 진실로 우연일 뿐이니, 나는 古人(태공)을 위해 이 말(태공이 주나라를 낚았다는 말)을 부끄러워하노라(當年把釣釣無鉤, 意不求魚況釣周? 終遇文王眞偶爾, 此言吾爲古人羞)"라 하였다. 대개 주나라를 낚으려는 것이 태공의 본심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옛사람의 뜻을 거꾸로 이용하여 새로움을 만들어내었으니 격조가 높고 율격이 새롭다.62)

서거정은 '用'의 의미를 '直用'과 '反用'으로 구분하면서 최해의 시를 예로 들었다. 최해의 시는 강태공이 渭水에서 낚시를 한 속뜻이 주나라를 낚으려는 데 있었다는 기존의 일반적인 역사적 평가를 비판한 것이다. 기존의 역사적 평가란 李白이 「留別于十一兄逖、裴十三遊塞垣 에서 "太公渭川水, 李斯上蔡門, 釣周獵秦安黎元, 小魚豈兎何足言?"라 한 것이나 李奎報가 「漁父 (『東國李相國集』 권14, 436b면)에서 "江湖放浪作閑民, 猶笑公侯富貴身. 爾笑世人人亦笑, 渭川還有釣周人."이라 한 것을 가리킨다.

최해의 시에 태공이 위수에서 낚시를 하다가 文王을 만났다는 고사가 쓰이고 있으므로 이를 용사의 하나로 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최해가 가져다 쓴 '事'는 태공의 고사가 아니라 태공의 고사에 대한 世間의 평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태공의 고사는 一句나 一聯의 의경을 만들어내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시 전체의 주제와 깊이 연관된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최해의 시는 일부분의 의경을 창작하기 위해 용사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고사 자체를 시의 제재로 삼은 것이라 보아야 한다.

---

62) "古人用事, 有直用其事, 有反其意而用之者. 直用其事, 人皆能之, 反其意而用之, 非材料卓越者, 自不能到. 崔拙翁「太公釣周」詩: '當年把釣釣無鉤, 意不求魚況釣周? 終遇文王眞偶爾, 此言吾爲古人羞.' 盖發明釣周非太公之本心, 能反古人意, 自出機軸, 格高律新." (徐居正, 『東人詩話』 卷下)

www.kci.go.kr

최해의 시처럼 故事를 제재로 삼아 새로운 평가를 내린 경우는 일반적으로 '史詩'에 포함된다. 제목을 통해 어떠한 역사적 사건을 제재로 삼은 것인지 알 수 있는 한시는 이른바 詠史詩나 論史詩 등으로 분류된다. 최해의 시를 용사의 한 예로 본다면 모든 영사시에 용사가 쓰인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용사를 시의 제재를 선택하고 주제를 만들어내는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용사는 전체 글 가운데 일부의 어구나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활용되는 작법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反用'을 詠史詩와 論史詩의 창작 방법이라고 인정한다면 용사의 개념과 범주가 지나치게 확장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사의 본래 의미에 변용을 가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덧붙여 텍스트의 일부분으로 삼는 경우에 한정하여 '反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① 자못 도연명의 아들보다 낫구나, 아비에게 밤을 부칠 줄 알다니.
한 주머니 하찮은 것을 나누어, 천리 밖 배고픔을 위로해주네.
가족 염려하는 그 마음 아름답고, 봉할 때의 그 정성 아른거리네.
맛보려다 도리어 즐겁지 않아, 먼 하늘을 슬프게 바라보네.
頗勝淵明子, 能將栗寄翁. 一囊分瑣細, 千里慰飢窮.
眷係憐心曲, 封緘憶手功. 欲嘗還不樂, 惆悵視長空.[63]

② 小쇼香향爐노 大대香향爐노 눈 아래 구버 보고,
正졍陽양寺사 眞진歇헐臺대 고텨 올나 안즌마리,
廬녀山산 眞진面면目목이 여긔야 다 뵈ᄂᆞ다.

①을 이해하려면 도연명의 「責子」 시를 알아야 한다. 도연명은 「責子 에서 "雖有五男兒, 總不好紙筆"이라 하여 다섯 아들 모두가 책을 읽거나 글을 짓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通子垂九齡, 但覓梨與栗"이라 하여 막내인 通이 거의 아홉 살이 다 되었는데도 배와 밤만 찾는다고 책

63) 丁若鏞, 「穉子寄栗至」, 『與猶堂全書』(총간 281), 第一集(詩文集), 제4권, 76a·b면.

www.kci.go.kr

망하였다. 글을 배울 생각은 안 하고 먹을 것만 탐하여 밤과 배를 내놓으라고 떼만 쓴다는 것이다.

정약용은 '淵明子'와 '栗'이라는 시어를 써서 도연명의 아들인 通의 고사를 가져다 썼지만, 자신의 아들이 도연명의 아들보다 낫다는 뜻을 덧붙여 새로운 의경을 만들어내었다. 정약용의 시는 도연명이 아들을 책망한 것이 옳다 그르다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시의 주제는 '기특한 아들에 대한 칭찬과 그에 대한 고마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이별의 슬픔'이며 도연명의 고사는 단순히 일부 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최해의 「太公釣周」에 보이는 용사 방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②는 鄭澈의 「關東別曲 가운데 眞歇臺에서 바라본 금강산의 승경을 묘사한 부분이다. '廬山의 眞面目을 다 볼 수 있다'는 의경은 蘇軾의 「題西林壁 , "橫看成嶺側成峰, 遠近高低各不同. 不識廬山眞面目, 只緣身在此山中"의 轉句을 뒤집어 이용한 것이다. 蘇軾의 시는 너무나도 다양하여 진면목을 헤아릴 수 없는 廬山의 승경을 묘사한 것이고, 정철의 「관동별곡」은 금강산의 진면목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진헐대의 가치를 묘사한 것이다. 정철의 예 역시 蘇軾 시의 의경을 거꾸로 이용하여 텍스트의 일부 의경을 만들어낸 것이므로 '反用'의 예라 할 수 있다.

5. 결론

선행 연구의 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用事'의 개념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용사와 점화의 개념 차이에 대한 논란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거니와 출전의 성격, '事'와 '用'의 의미와 범주 등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럿 존재한다.

출전의 성격과 범위에 관련된 문제로는 출전이 반드시 문헌이어야 하느냐는 것과 출전의 범위에 일정한 제한이 있느냐는 것을 들 수 있다. 출전의 범위는 창작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출전의 성격은 용사를 이용하고 수용하는 공동체의 신념과 인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www.kci.go.kr

따라서 구전된 것도 용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용사의 내용보다 출전의 성격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

'事'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點化'를 포함한 하위범주의 설정이 문제가 되며, '用'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假用', '借用', '反用' 등이 문제가 된다. 이 문제들은 용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전비평 용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본론의 논의를 종합하여 용사의 개념을 정리하면, "전달하려는 뜻과 감정의 설득력과 호소력을 높이기 위하여 선행 텍스트에 존재하는 사건, 지식, 주장, 형상화 방식 등을 인용하거나 변용하여 창작 텍스트의 일부로 삼는 창작 방법"을 용사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의만으로 용사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규정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용사의 목적과 효과, 용사가 이루어지는 방식, 성공적인 용사의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축적되어야 용사의 개념에 대한 보다 엄밀한 정의가 가능할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자료>

徐居正,『東人詩話』(박성규 역주), 집문당, 1998.
_____,『東人詩話』(이월영 역주), 월인, 2000.
_____,『東人詩話』(권경상 역주), 다운샘, 2003.
李仁老,『破閑集』(이상보 역주), 범우사, 1994.
崔 滋,『補閑集』(박성규 역주), 계명대학교출판부, 1984.
_____,『補閑集』(유재영 역주), 원광대학교출판국, 1989.
_____,『補閑集』(이상보 역주), 범우사, 2001.

<논저>

고현철,「用事詩學과 패러디 시학의 비교 연구」,『현대문학이론연구』12, 현대문학이론학회, 1999, 203~226면.
김성룡,「典範 학습과 중세의 문학교육」,『문학교육학』1, 한국문학교육학회, 1997, 255~292면.
_____,「시학과 글쓰기: 剽竊과 換骨奪胎 사이」,『작문연구』제6집, 한국작문학회, 2008, 227~248면.
金元中,「用事攷:『文心雕龍』을 中心으로」,『中國語文學』제23집, 嶺南中國語文學會, 1994, 27~46면.
閔丙秀,「古典詩論의 韓國的 展開에 대하여 ,『眞檀學報』48, 震檀學會, 1979, 149~172면.
박수밀,「用事와 패러디의 상관관계 고찰 ,『溫知論叢』第16輯, 溫知學會, 2007, 153~178면.
宋載邵,「漢詩 用事의 比喩的 機能」,『韓國漢文學硏究』제8집, 韓國漢文學會, 1985, 291~310면.
윤인현,『韓國 古典批評과 古典詩歌의 산책』, 역락, 2004.
李鍾默,「李仁老의 漢詩作法과 詩世界」,『韓國漢詩作家硏究』1, 韓國漢詩學會, 1995, 109~131면.
_____,「고전시가에서 用事와 點化의 미적 특질」,『韓國詩歌硏究』제3집, 韓國詩歌學會, 1998, 323~345면.
이화형, 용사(用事)의 개념 정립을 위한 제언: 고려조 시화(詩話)를 중심으로」,『국제어문』제21집, 국제어문학회, 2000, 3~24면.

www.kci.go.kr

_____,「崔滋의 新意와 用事에 대한 再考」,『語文硏究』 제32권 제3호, 韓國語文敎育硏究會, 2004, 367~390면.
鄭堯一,「漢詩批評 用語의 分類」,『雨田 辛鎬烈 先生 古稀記念論叢』, 創作과批評社, 1983.
_____,「點化·蹈襲·換骨奪胎·點鐵成金의 槪念 硏究 ,『漢文敎育硏究』 제1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6, 329~338면.
_____,『고전비평 용어 연구』, 태학사, 1998.
趙鍾業,「高麗詩論硏究 ,『語文硏究』 第1輯, 忠南大語文硏究會, 1963, 5~63면.
崔信浩,「初期詩話에 나타난 用事理論의 樣相」,『古典文學硏究』 제1집, 韓國古典文學硏究會, 1971, 117~136면.

www.kci.go.kr

A Reappraisal on the Concept and Category of "Yongsa[用事]"

Gu, Bon-Hyeon

Although there have been a lot of researches on it, the concept of the term, "Yongsa[用事]" is still not clearly defined. It is because there have been unsolved problems with regard to the characters of the source of "Yongsa", and the exact meaning of "Sa[事]" and "Yong[用]."

It is common knowledge that the source of "Yongsa" should be in the form of literature but actually the contents transmitted by word of mouth can be included in "Sa." The scope of the source of "Sa" varies depending on the belief and cognitive structure of those who use and accept "Yongsa." Also, the scope of the source varies depending on the character of the text or the circumstances of writing.

What belong to "Sa" are event, knowledge, contention, and the method of formation. Some scholars distinguish it from the "Yongsa" of the 'method of formation' as "Jeomhwa[點化]." In this study, "Jeomhwa" is regarded as being included in "Yongsa", but in order to solve this controversy, separate researches are needed.

With regard to the meaning of "Yong", the terms "Gayong[假用]", "Chayong [借用]", and "Banyong[反用]" become controversial issues. "Gayong" is not useful since it is not the term that denotes the method in which "Yongsa" is formed. "Chayong" should be regarded as a method to use one of new meanings derived from original meaning. With regard to "Banyong", the question of whether "Yeongsa poetry[詠史詩]“ or "Nonsa poetry[論史詩]” can be regarded as cases of "Banyong" arises.

In conclusion, "Yongsa" can be defined as a method of composition that quotes

www.kci.go.kr

or modifies former text's event, knowledge, assertion, the method of formation, and makes them as part of the text in order to enhance the persuasiveness and appeal of the meaning and sentiments of the message to be conveyed.

Keywords: "Yongsa[用事]", "Jeomhwa[點化]", Source[出典], "Gayong[假用]", "Chayong[借用]", "Banyong[反用]"

접수일자 : 2009. 4. 10
심사기간 : 2009. 4. 20～2007. 5. 10
게재결정 : 2009. 5. 20

www.kci.go.kr